

오피니언

다산포럼

조상호



중앙일보 김영희 대기자의 '소설 하멜'을 오랜만에 감동으로 읽었다. 이제는 고전이 된 이병주의 '관부연락선'이나 '지리산'이 주는 감칠맛이 되살아났다. 언론현장에서 국제정치의 흐름을 취재하고 분석하는 기자활동에도 여념이 없을 텐데 이 소설은 8년 동안 불들고 창작욕을 불태운 '큰바위 얼굴'의 그 열정에 천사를 보낸다.

'하멜 표류기'를 읽지 않고 그 제목만 외우면서도 지식인인 척 살아남을 수 있는 오늘의 허위의식을 그는 일부러 탓하지도 않는다. 애써 모른 척하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팬순을 앞둔 이 노 언론인의 2000매가 넘는 대작이 지르는 마음의 빛장에서 얼른 벗어나고 싶었다.

다시 일상이 된 하위의 껌데기에 숨기 위해서라도 밤새워 읽었는지도 모른다. 어디까지가 하멜의 표류기이고, 어디가 작가의 소설인지 구태여 가려불 틀도 없이 소설의 마지막 장을 넘기는 자신을 발견한다. 그만큼 작가의 치밀한 구성과 함께 유려한 문체에 마법처럼 사로잡히기 때문이다.

소설의 처음은 항상 사랑하는 여자와의 안타까운 이별로 시작된다. 22세 청년 하멜은 사랑하는 여인을 떠나기 위해 모두가 선망하는 증권 중개인 자리를 내던지고, 전혀 새로운 미지의 세계에 운명을 건다. 암스테르담에서 자카르타를 거쳐 극

으로 훈련도감에서 총포 제작에 종사했듯이 말이다.

그러나 그때 조선은 중국을 세상의 중심에 모시고, 우리는 소중화(小中華)라고 열심히 해야 살아남는다는 세계 변방의 청맹과 니에 불과한 채 깊은 동굴 속에 살고 있었다. 세상으로 열린 청은 중국으로 이르는 동지사 사신과 조공을 바치는 무거운 발길로 뒤덮인 대륙으로 통하는 육로밖에 없었다.

이미 15세기 초에 세상을 뒤흔든 정화

암(昏暗)한 군주가 나라와 백성을 온전히 바람 앞의 등불로 내던졌다"고 저자는 개탄한다.

역사는 되풀이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시간이 필요한 역사의 패러독스는 있을 수 있다. "한국인이 하멜의 이야기를 평정심을 갖고 읽기는 쉽지가 않다. 조선 조정이 그들의 표착을 계기로 넓은 세상에 눈을 끄고 미래를 준비했다라면 그 후 우리 역사는 다른 길을 걸었을 것이다"라는 저자의 육성이 큰 울림으로 다가온다.

그렇게 안타깝게 바랐던 그때 17세기

중반의 '세기 뛰어넘기'는 300년이 더 지나야 했다. 서울신문 문소영 기자가 피를 토하듯 그랜드 '못난 조선'은 일본의 식민지도 경험해야 했고, 6·25 전쟁으로 젓더 미가 된 한반도에서 분단되어 고립무원의 섬이 되는 냉혹한 대기를 치러야 했다.

살아남기 위해 거친 뱃길을 개척하며 몸부림친 60년 동안의 임업한 세월은 새 삶 말해 무엇하랴. 그러나 하멜의 후손 히딩크와 월드컵 4강의 축배를 들기도 하면서 이제 세계무역 10대 국의 깃발이 우리 역사가 되고 있다. 이제는 암스테르담 어딘가를 떠돌 하멜의 영혼에게 우리는 야만의 나리였던 적이 있었다고 말해줘도 좋을 듯싶다.

〈[\(주\)나님출판 대표이사\)](#)

※ 본문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17세기 조선 뛰어넘기

동무역본부인 나가사키 네덜란드 상관을 향해 죽음의 항로로 가는 동인도회사 무역선이 그것이다.

가끔은 우연이 역사가 되기도 한다. 제주에 표류한 하멜 등 네덜란드 선원 36명이 그 주인공이다. 병자호란이 끝나고 17년이 지난 17세기 중반의 조선에 그들은 하늘이 내린 선물이었다.

조선에서의 13년 동안 세계 최강의 무역국 선원답게 조선(造船), 화포 제작, 천문 역사, 의술 등 서양의 문물을 우리에게 전할 수도 있었다. 이미 27년 전에 표류한 네덜란드인 베텔브레가 박연이라는 이름

지리상 대발견으로 무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심지어 일본은 이미 16세기부터 해외 교역을 시작하여 칠기, 도자기를 유럽에 수출하고 서양의 과학기술, 새로운 학문을 도입하던 그때였다.

이 아동에 익숙한 동굴의 질서에 새로운 빛줄기를 수용할 우리의 왕은 없었다. 오히려 전쟁에 치친 헬벗은 백성을 달달하고, 신하들의 충심을 결집해 왕권을 지키려고 청나라를 치려는 불법정책이라는 망상의 안개에 싸인 효종의 나라였다. "도도한 변혁의 바람, 역사의 수레가 굴러가는 방향을 보지 못하는 이 나라의 혼

계 해달라고 하면서 고맙다고도, 미안하다고도 안 했다. 그 역시 젓가락질을 배우지 못했다.

마지막 신청자는 5~6시간 거리에 사는데 카트만두에 도착한 후에야 나에게 만나자고 연락을 한다. 이로서가 화려하고 나이도 젊고 의대에서 가르치고 있다고 했다. 한국에서 요구하는 실험 기술들을 거의 갖추고 있어서 은근히 기대를 했는데 막상 만나보니 이어서 부풀려 놨다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젓가락질만 떠면 모든 면에서 양호한 두 번째 신청자를 추천했다. 젓가락질이 진정 실험실에서 요구하는 손 기술을 제대로 반영하는지 표기될 수 있는지에 대한 자료가 없다. 또한 그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도 맘에 들었다.

나는 이번 면담을 통하여 몇 가지를 배웠다. 네팔에서 사전 시간 약속은 필수 사항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좀 늦은 것도 큰 잘못은 아니었다. 또한 갑자기 사과는 거의 말로 표현하지 않는다는 것을 배웠다. 잘못을 시인하거나 사과하는 순간, 그는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한다고 느낀다는 것이다. 초대받아서 밥을 잘 먹고 고맙다고 말로 표현하면 오히려 이상하다고 했다. 맛있게 먹는 모습, 크게 트립하는 것을 보고 주인은 만족해 한다고 네팔인 친구는 설명했다.

〈[\(파탄의대 객원 교수·전남대 명예교수\)](#)

네팔 대학원생 면접

아들였다.

자발성과 적극성은 이들이 접촉해 오는 태도를 보면 되고, 성실성은 약속시간 준수와 면접 태도, 그리고 제출한 이력서를 보고,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지는 현재 사는 것을 보면 될 것 같다. 문제는 손 기술을 파악하는 것인데 젓가락질을 얼마나 빨리 배우는지, 어떻게 정확하게 사용하는지를 관찰하면서 될 것 같았다.

첫 번째 신청자는 사전 약속이 없었는데 여러 시간 버스를 타고 왔다면서 만나자고 했다. 어쨌든 나는 그를 만나 한국 식당으로 데리고 갔다. 식성을 물으니 독실한 한우교도에서 막고기와 염소고기만 먹는다고 했다.

첫 번째 신청자는 사전 약속이 없었는데 여러 시간 버스를 타고 왔다면서 만나자고 했다. 어쨌든 나는 그를 만나 한국 식당으로 데리고 갔다. 식성을 물으니 독실한 한우교도에서 막고기와 염소고기만 먹는다고 했다.

첫 번째 신청자는 사전 약속이 없었는데 여러 시간 버스를 타고 왔다면서 만나자고 했다. 어쨌든 나는 그를 만나 한국 식당으로 데리고 갔다. 식성을 물으니 독실한 한우교도에서 막고기와 염소고기만 먹는다고 했다.

첫 번째 신청자는 사전 약속이 없었는데 여러 시간 버스를 타고 왔다면서 만나자고 했다. 어쨌든 나는 그를 만나 한국 식당으로 데리고 갔다. 식성을 물으니 독실한 한우교도에서 막고기와 염소고기만 먹는다고 했다.

첫 번째 신청자는 사전 약속이 없었는데 여러 시간 버스를 타고 왔다면서 만나자고 했다. 어쨌든 나는 그를 만나 한국 식당으로 데리고 갔다. 식성을 물으니 독실한 한우교도에서 막고기와 염소고기만 먹는다고 했다.

첫 번째 신청자는 사전 약속이 없었는데 여러 시간 버스를 타고 왔다면서 만나자고 했다. 어쨌든 나는 그를 만나 한국 식당으로 데리고 갔다. 식성을 물으니 독실한 한우교도에서 막고기와 염소고기만 먹는다고 했다.

첫 번째 신청자는 사전 약속이 없었는데 여러 시간 버스를 타고 왔다면서 만나자고 했다. 어쨌든 나는 그를 만나 한국 식당으로 데리고 갔다. 식성을 물으니 독실한 한우교도에서 막고기와 염소고기만 먹는다고 했다.

첫 번째 신청자는 사전 약속이 없었는데 여러 시간 버스를 타고 왔다면서 만나자고 했다. 어쨌든 나는 그를 만나 한국 식당으로 데리고 갔다. 식성을 물으니 독실한 한우교도에서 막고기와 염소고기만 먹는다고 했다.

첫 번째 신청자는 사전 약속이 없었는데 여러 시간 버스를 타고 왔다면서 만나자고 했다. 어쨌든 나는 그를 만나 한국 식당으로 데리고 갔다. 식성을 물으니 독실한 한우교도에서 막고기와 염소고기만 먹는다고 했다.

첫 번째 신청자는 사전 약속이 없었는데 여러 시간 버스를 타고 왔다면서 만나자고 했다. 어쨌든 나는 그를 만나 한국 식당으로 데리고 갔다. 식성을 물으니 독실한 한우교도에서 막고기와 염소고기만 먹는다고 했다.

첫 번째 신청자는 사전 약속이 없었는데 여러 시간 버스를 타고 왔다면서 만나자고 했다. 어쨌든 나는 그를 만나 한국 식당으로 데리고 갔다. 식성을 물으니 독실한 한우교도에서 막고기와 염소고기만 먹는다고 했다.

첫 번째 신청자는 사전 약속이 없었는데 여러 시간 버스를 타고 왔다면서 만나자고 했다. 어쨌든 나는 그를 만나 한국 식당으로 데리고 갔다. 식성을 물으니 독실한 한우교도에서 막고기와 염소고기만 먹는다고 했다.

첫 번째 신청자는 사전 약속이 없었는데 여러 시간 버스를 타고 왔다면서 만나자고 했다. 어쨌든 나는 그를 만나 한국 식당으로 데리고 갔다. 식성을 물으니 독실한 한우교도에서 막고기와 염소고기만 먹는다고 했다.

첫 번째 신청자는 사전 약속이 없었는데 여러 시간 버스를 타고 왔다면서 만나자고 했다. 어쨌든 나는 그를 만나 한국 식당으로 데리고 갔다. 식성을 물으니 독실한 한우교도에서 막고기와 염소고기만 먹는다고 했다.

첫 번째 신청자는 사전 약속이 없었는데 여러 시간 버스를 타고 왔다면서 만나자고 했다. 어쨌든 나는 그를 만나 한국 식당으로 데리고 갔다. 식성을 물으니 독실한 한우교도에서 막고기와 염소고기만 먹는다고 했다.

첫 번째 신청자는 사전 약속이 없었는데 여러 시간 버스를 타고 왔다면서 만나자고 했다. 어쨌든 나는 그를 만나 한국 식당으로 데리고 갔다. 식성을 물으니 독실한 한우교도에서 막고기와 염소고기만 먹는다고 했다.

첫 번째 신청자는 사전 약속이 없었는데 여러 시간 버스를 타고 왔다면서 만나자고 했다. 어쨌든 나는 그를 만나 한국 식당으로 데리고 갔다. 식성을 물으니 독실한 한우교도에서 막고기와 염소고기만 먹는다고 했다.

첫 번째 신청자는 사전 약속이 없었는데 여러 시간 버스를 타고 왔다면서 만나자고 했다. 어쨌든 나는 그를 만나 한국 식당으로 데리고 갔다. 식성을 물으니 독실한 한우교도에서 막고기와 염소고기만 먹는다고 했다.

첫 번째 신청자는 사전 약속이 없었는데 여러 시간 버스를 타고 왔다면서 만나자고 했다. 어쨌든 나는 그를 만나 한국 식당으로 데리고 갔다. 식성을 물으니 독실한 한우교도에서 막고기와 염소고기만 먹는다고 했다.

첫 번째 신청자는 사전 약속이 없었는데 여러 시간 버스를 타고 왔다면서 만나자고 했다. 어쨌든 나는 그를 만나 한국 식당으로 데리고 갔다. 식성을 물으니 독실한 한우교도에서 막고기와 염소고기만 먹는다고 했다.

첫 번째 신청자는 사전 약속이 없었는데 여러 시간 버스를 타고 왔다면서 만나자고 했다. 어쨌든 나는 그를 만나 한국 식당으로 데리고 갔다. 식성을 물으니 독실한 한우교도에서 막고기와 염소고기만 먹는다고 했다.

첫 번째 신청자는 사전 약속이 없었는데 여러 시간 버스를 타고 왔다면서 만나자고 했다. 어쨌든 나는 그를 만나 한국 식당으로 데리고 갔다. 식성을 물으니 독실한 한우교도에서 막고기와 염소고기만 먹는다고 했다.

첫 번째 신청자는 사전 약속이 없었는데 여러 시간 버스를 타고 왔다면서 만나자고 했다. 어쨌든 나는 그를 만나 한국 식당으로 데리고 갔다. 식성을 물으니 독실한 한우교도에서 막고기와 염소고기만 먹는다고 했다.

첫 번째 신청자는 사전 약속이 없었는데 여러 시간 버스를 타고 왔다면서 만나자고 했다. 어쨌든 나는 그를 만나 한국 식당으로 데리고 갔다. 식성을 물으니 독실한 한우교도에서 막고기와 염소고기만 먹는다고 했다.

첫 번째 신청자는 사전 약속이 없었는데 여러 시간 버스를 타고 왔다면서 만나자고 했다. 어쨌든 나는 그를 만나 한국 식당으로 데리고 갔다. 식성을 물으니 독실한 한우교도에서 막고기와 염소고기만 먹는다고 했다.

첫 번째 신청자는 사전 약속이 없었는데 여러 시간 버스를 타고 왔다면서 만나자고 했다. 어쨌든 나는 그를 만나 한국 식당으로 데리고 갔다. 식성을 물으니 독실한 한우교도에서 막고기와 염소고기만 먹는다고 했다.

첫 번째 신청자는 사전 약속이 없었는데 여러 시간 버스를 타고 왔다면서 만나자고 했다. 어쨌든 나는 그를 만나 한국 식당으로 데리고 갔다. 식성을 물으니 독실한 한우교도에서 막고기와 염소고기만 먹는다고 했다.

첫 번째 신청자는 사전 약속이 없었는데 여러 시간 버스를 타고 왔다면서 만나자고 했다. 어쨌든 나는 그를 만나 한국 식당으로 데리고 갔다. 식성을 물으니 독실한 한우교도에서 막고기와 염소고기만 먹는다고 했다.

첫 번째 신청자는 사전 약속이 없었는데 여러 시간 버스를 타고 왔다면서 만나자고 했다. 어쨌든 나는 그를 만나 한국 식당으로 데리고 갔다. 식성을 물으니 독실한 한우교도에서 막고기와 염소고기만 먹는다고 했다.

첫 번째 신청자는 사전 약속이 없었는데 여러 시간 버스를 타고 왔다면서 만나자고 했다. 어쨌든 나는 그를 만나 한국 식당으로 데리고 갔다. 식성을 물으니 독실한 한우교도에서 막고기와 염소고기만 먹는다고 했다.

첫 번째 신청자는 사전 약속이 없었는데 여러 시간 버스를 타고 왔다면서 만나자고 했다. 어쨌든 나는 그를 만나 한국 식당으로 데리고 갔다. 식성을 물으니 독실한 한우교도에서 막고기와 염소고기만 먹는다고 했다.

첫 번째 신청자는 사전 약속이 없었는데 여러 시간 버스를 타고 왔다면서 만나자고 했다. 어쨌든 나는 그를 만나 한국 식당으로 데리고 갔다. 식성을 물으니 독실한 한우교도에서 막고기와 염소고기만 먹는다고 했다.

첫 번째 신청자는 사전 약속이 없었는데 여러 시간 버스를 타고 왔다면서 만나자고 했다. 어쨌든 나는 그를 만나 한국 식당으로 데리고 갔다. 식성을 물으니 독실한 한우교도에서 막고기와 염소고기만 먹는다고 했다.

첫 번째 신청자는 사전 약속이 없었는데 여러 시간 버스를 타고 왔다면서 만나자고 했다. 어쨌든 나는 그를 만나 한국 식당으로 데리고 갔다. 식성을 물으니 독실한 한우교도에서 막고기와 염소고기만 먹는다고 했다.

첫 번째 신청자는 사전 약속이 없었는데 여러 시간 버스를 타고 왔다면서 만나자고 했다. 어쨌든 나는 그를 만나 한국 식당으로 데리고 갔다. 식성을 물으니 독실한 한우교도에서 막고기와 염소고기만 먹는다고 했다.

첫 번째 신청자는 사전 약속이 없었는데 여러 시간 버스를 타고 왔다면서 만나자고 했다. 어쨌든 나는 그를 만나 한국 식당으로 데리고 갔다. 식성을 물으니 독실한 한우교도에서 막고기와 염소고기만 먹는다고 했다.

첫 번째 신청자는 사전 약속이 없었는데 여러 시간 버스를 타고 왔다면서 만나자고 했다. 어쨌든 나는 그를 만나 한국 식당으로 데리고 갔다. 식성을 물으니 독실한 한우교도에서 막고기와 염소고기만 먹는다고 했다.

첫 번째 신청자는 사전 약속이 없었는데 여러 시간 버스를 타고 왔다면서 만나자고 했다. 어쨌든 나는 그를 만나 한국 식당으로 데리고 갔다. 식성을 물으니 독실한 한우교도에서 막고기와 염소고기만 먹는다고 했다.

첫 번째 신청자는 사전 약속이 없었는데 여러 시간 버스를 타고